■ 정부,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 설 연휴 난감한 고향 방문

이러지도 저러지도, 나오는 건 한숨뿐…

서울 거주 40대 "올해는 포기… 선물만 보낼 것"
30대 A씨 "모임 약속됐는데, 어르신 생각대로…"

"이번 설 연휴에는 집 방문 안할게요. 밥이랑 약 잘 챙겨드시고 나중에 영상통화 걸게요."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는 박남현(44)씨는 올 설 연휴에 고향 방문을 포기했다.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키로 연장하면서 직계가족이라도 5인이상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박씨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이같은 조치가 발표되면서 석달 전에 잡아놨던 비행기표도 취소했다.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이 걱정된다. 서울에서 살다 보니 추석, 설날 때밖에 내려가지 못한다"라며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할텐데 언제 끝날지 몰라 속만 탄다. 부모님·친척들과 밥 한끼 못먹는 게 속상하지만 올해는 선물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이 목전에 왔지만 명절 풍경은 이전과 사뭇 다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맞았던 명절인 지난해 추석 때만 해도 정부에서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 정도에 그쳤지만, 이번 설에는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공간이 다르면 한 공간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친척들과 만남을 피하기 위해 설 연휴와 시차를 두고 고향에 다녀오려는 이들도 있다.

울진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고경은(28·여)씨는 "올해 설 연휴에 남자친구를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인사시켜 드리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이 4명이라 남자친구까지 만나면 5명이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에 어긋나게 돼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다"면서 "14일 이후 거리두기 하향 여부를 보며 3월달 쯤에 인사시킬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본가가 다른지역에 있는 제주지역 근무자들도 고민이 많다. 제주도내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모(31)씨는 "정부에서 거주지가 다른 가족들의 5인 이상 모임도 금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진퇴양난"이라며 "어르신들이 계셔서 모임 취소는 쉽지 않다. 설사 걸린다고 해도 과태료 10만원이라 그냥 낼 것을 각오하고 진행할 듯 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올 설 연휴 기간 제주에는 관광객 등 14만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약 14만3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 21만1848명보다 32.5% 줄어든 수치지만, 최근 일주일간 일일 제주관광객 2만명 보다는 20~30%가량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도관광협회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항공기 평균 탑승률을 69%대로 예상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물질하던 80대 해녀 숨져

물질을 하던 80대 해녀가 숨졌다.

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1분쯤 성산읍 오조리 마을어장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A(84)씨가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이송됐지만 같은날 오후 1시10분 숨을 거뒀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소라 채취를 위해 동료 해녀 10여명과 함께 바다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애월 다세대주택서 불

새벽시간대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7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11분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다세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대피를 하던 A(47)씨가 손목과 팔꿈치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해당 주택 내부 45㎡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주택 거실에 켜 놓았던 촛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미세먼지로 뿌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권역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제주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주의보 농도는 77㎍(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나쁨날씨를 보인 이날 제주시 연삼로에서 바라본 제주시가지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신호등 위치에 문제있어 교통사망사고"
광주고법, 급여·장의비 소송서 유족 손 들어줘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신호등 위치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에서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출근을 하던 중 제주시 도련동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신호위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당시 A씨가 진행하는 방향의 제1주신호등이 정지선 바로 위에 설치돼 있어 A씨가 정차했을 때는 해당 신호등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제2주신호등(배면신호등)은 정지선으로부터 55m 떨어져 있고, 주변에 가로수까지 식재돼 있어 신호등의 존재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서 코로나19 관련 환자 사망

제대병원 입원 60대 환자
5일 급성폐부전으로 숨져
병원측 "기저질환은 없고 확진 판정이후 상태 악화"

제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5일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60대 환자 A씨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6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였지만 코로나19 감염 이후에는 폐렴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항바이러스 치료와 산소치료, 기계 환기, 다양한 약제 사용 등을 실시했지만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폐섬유화, 급성폐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심층적인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지는 날 "아빠가 금방 나아서 돌아갈게"라는 내용으로 아들과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래 제주대 감염내과 교수는 "제주는 위중한 코로나19 환자라도 다른지역에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코로나19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폐 이식 외에는 호전을 기대해 볼 만한 경우가 별로 없다. 이 또한 장기 공여자, 면역적합성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백신 도입이 된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생활방역과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50대 여 음주차량 편의점 돌진

유리창·진열물품 등 파손

제주시청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쯤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근 한 편의점에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유리창과 일부 진열 물품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

편의점으로 돌진한 음주차량. 사진=독자제공

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협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도감사위 성희롱 의혹 공무원 중징계 요구

도 "조만간 징계절차 착수"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제주시 소속 A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지난 5일 전해졌다.

다만 감사위는 공무원에 대한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언제 중징계를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어떤 비위 행위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제주시는 도감사위원회가 A국장을 대상으로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A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지방공무원법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품위손상 유형은 성추행, 성매매, 음주운전, 도박, 강도, 사기, 폭행 등이다.

도감사위가 A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조만간 제주도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기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광양사거리 화북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그랜드 보청기
2021히트브랜드 대상 보청기부문 수상!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HBTHBA 히트브랜드대상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대목)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